한인 정창식 씨, 풀러턴 시의원 도전

내년 11월 열린 풀러턴 1지구 시의원 선거에 남가주한인중앙상공회의 소장을 역임한 한인 정창식 씨(사진)가 출마한다.

정 씨는 "지난해 1지구 커뮤니티개발 주민위원회 커미셔너로 일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시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시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영어에 취약한 한인들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난감해 하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었다. 시의원에 당선되면 지역 주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특히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를 전했다.

정 씨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산불 대비책 마련 ●도로 여건 개선 ●치안 문제 개선 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씨가 출마하는 풀러턴 1지구는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아메리지 하이츠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전체 유권자 1만 3,895명 가운데 아시아계 유권자 비율은 48.4%이며, 한인 유권자 수는 3,331명(24%)에 달해 한인들이 결집한다면 한인 시의원 배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지구 현역 시의원은 제니퍼 피츠제럴드 부시장으로, 그는 내년 선거에도 출마해 정 씨와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필리핀계의 아벨 디노 전 풀러턴 경제개발위원회 커미셔너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현재 선거캠프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 연말쯤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라며 한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LA한국문화원, 2019 LA Art Project 5: '제51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전' 개최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 이하 문화원)은 2019년 9월 전시로 '제51회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전 (The 51st Annual Exhibition of Korean Artist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를 열고 있다. 9월 20일(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남가주미술가협회 소속 63명의 회원들이 출품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문화원 측은 "오랜 세월 이민 문화와 함께해 온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는 1964년 발족하여 정기전 외에 회원들의 그룹전과 타민족과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그룹전, 차세대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 및 격려를 위한 대학 공모전 등 미주한인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전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 "며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작가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원로작가와 중견작가, 신인작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젊은작가들의 신선한 작품부터 원로작가들의 성숙미 넘치는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접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박위진 원장은 "남가주 한인 미술가들의 큰 잔치인 이번 전시회는 미주 내에서도 전통 있고 규모 있는 전시회로 꼽힌다. 이 전시회를 통해 한인 작가들이 이민생활 속에서 예술을 지켜가고,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미셸 오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회장은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정기전에는 90여 명의 회원 작가 중 63명이 참여해 작가들의 참여율도 높으며, 어느 해보다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며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아 작품도 감상과 더불어 작가들이 노고에 대한 격려도 당부했다.

▶ 문의: (323) 936-3014

민족학교,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숍

21일 풀러턴 사무실 … "한인 권익 향상 위해 적극 신청 해야"

민족학교가 오는 9월 2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족학교 풀러턴 사무실(62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2)에서 오렌지카운티 거주 한인을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무료 작성과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

무료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살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4년 9개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2년 9개월)이 지났으며, 최근 5년간 2년 6개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과 동시에 무료 시민권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안내를한다.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된다.

한편 민족학교에 따르면 2017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총 14,643명이며,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은 총 5,057명이다. 같은 해에 총 3,350명이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880명이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

민족학교 측은 "내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시민권 취득은 한인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 라며 자격이 되는 한인들은 적극적으로 시민권 신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714) 869-7624, www.krcla.org

캘코보험 CAL-KOR Insurance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캘코 생명보험

Samuel Lee
CA Lic# 0J08982
Cell: 562.756.6807
samuel@calkor.com

생명보험, 은퇴연금, 메디케어

〈20년 Term〉

나이 \ 사망보험금	30만		50만		1백만	
	여	남	여	남	여	남
30세	$15	17	19	23	30	36
40세	21	24	29	33	49	57
50세	41	54	64	83	118	152

〈30년 Term〉

나이 \ 사망보험금	30만		50만		1백만	
	여	남	여	남	여	남
30세	$21	24	29	35	49	60
40세	31	37	45	56	81	101
50세	71	95	104	135	198	262

*Best Rate 월 보험료 / 단위 $

암, 심장마비, 뇌졸증, 치매 등의 질병에 걸려 그로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생명보험 입니다

해당되는 질병으로 부터 본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

1. Critical Illness (중대질병) 특약
심장마비, 뇌졸증, 침윤성암, 말기 신부전증,
주요 장기이식, 전신마비, 실명
루게릭병 (근육위축증)

2. Chronic Illness (중증 만성질환) 특약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6ADL* 중 2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을시,
혹은 중증 인지능력 장애가 왔을 시 (예: 치매,알츠하이머)
6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동하기,목욕하기,옷 입기,식사하기,용변보기,배변조절

3. Terminal Illness (말기질환)
의사로부터 2년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을 시

2015년 당시 54세 남성 40만불 생명보험 가입 다음 해 10월에 갑상선암 판정 후 수술받음 특약을 통해 Claim한 후 $231,816을 보상받음 2019 현재 완쾌, 건강한 삶 유지

상기 설명된 특약에 관한 내용은 보험사별 지급 규정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받는 보상금의 계산은 각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 받을 수 있고 지급에 따른 세금 및 법률에 관한 조언은 각 분야의 전문인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보험사 별 지급 방식과 상세한 내용은 에이전트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OC 714.376.1871 7342 Orangethorpe Ave. #C103, Buena Park, CA 90621
LA 213.387.5000 3200 Wilshire Blvd. #1700, South Tower, LA, CA90010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종업원상해보험 사업체보험 주택보험 시니어 메디케어